



[정책동향] 영국-뉴질랜드 무역협정 합의, 양국 낙농업계 희비 갈려

- 뉴질랜드는 환영하는 한편 영국은 시장 잠식 우려 표명



영국이 뉴질랜드와의 무역협정에 합의한 가운데, 양국 낙농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올해 초 영국은 실질적인 브렉시트 단행 이후 교역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뉴질랜드와 관세를 크게 줄이고 무역량을 늘리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FTA가 발효되면 거래되는 97%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15년 이내에 모든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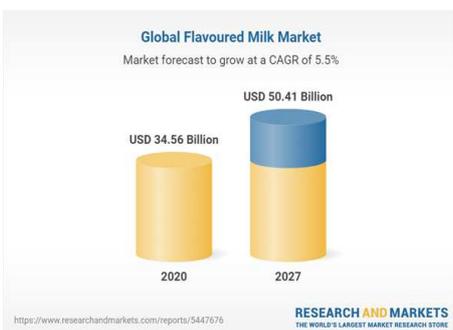
특히 뉴질랜드의 가장 큰 수출품인 유제품의 경우 버터와 치즈에 대한 관세가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임에 따라 뉴질랜드 낙농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영국 낙농업계는 뉴질랜드가 영국의 유제품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영국 낙농업계는 유제품은 물론 농산물 부문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져 자국내 식품 생산 능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며 공정하고 상호보완적인 교역 파트너십이 구축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출처 : stuff.co.nz / dairyindustries.com, 10월 22일자 >

[시장동향] 세계 가공유 시장, 2027년까지 연평균 5.54% 성장 전망

- 아시아 국가의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 등으로 시장 확대 추세



식습관의 변화에 따른 가공유 소비 증가로 세계 가공유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시장조사업체인 리서치앤마켓을 통해 발표된 '2021-2027년 세계 가공유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7년 가공유 매출이 504억 1,000만 달러(약 58조 9천억원)에 이르며 연평균 5.5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초콜릿, 과일, 바닐라 등 향미가 첨가된 가공유는 우유를 기피하는 어린이들이 일일 유제품 및 칼슘 섭취 권장량을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는 맛있고 영양가 풍부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니즈에 발맞춰 새로운 향미가 첨가된 가공유가 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 지역 학교에서 가공유를 학교우유로 공급하는 등 수요가 증가하고, 아시아 국가에서도 소득 증가로 가공유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businesswire.com, 10월 18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